

## <지난주 말씀>

▶여러분 스스로 오늘 뭐 해야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동시에 그게 나와 관계된 확정을 해야 합니다. 아는 것과 확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내게 와 있는 것에 대한 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질 때 오는 것이 생각의 복음화입니다. 확정되어질 때 오는 비밀이 생각의 복음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곧 미래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맞다면 이 자리가 여러분의 미래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 미래는 영원과 연결되어지고 그 미래는 오늘과 연결되어집니다.

▶선택은 놀랍게도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번 한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복음에 유익한 것이 뭘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속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건강, 시간,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건 틀린 소리입니다. 말에 속으면 안됩니다. 건강, 시간, 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사실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했다하든, 건강의 주인이 부르신다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을 붙잡고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인이 나의 주인이 맞다면 나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확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이 매일 사는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대언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받았습시다. 우리의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죄와 저주와 사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신 대언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답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언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대언자가 맞다면 놀랍게도 여러분이 대언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대언자입니다. 그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시기 때 문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나면 통번역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통번역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통번역하는 그 사람들만 통번역자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통번역자다. 이 말입니다.

▶그 대언자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창조사역을 함께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한 대언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와 여정을 걸어가며 여호와와 보좌의 이정표를 남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주에 렘넌트 리더수련회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여호와와 함께하고 보좌의 이정표를 남길 수 있도록. 사탄의 망대, 나의 과거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보좌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나의 각인을 치유해야 합니다. 각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절대 운명 해결이 안됩니다. 뿌리를 바꿔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체질을 바꿔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걸 위해서 의식을 회복하라. 세가지 의식입니다. 호흡 의식, 기도 의식, 의미 의식입니다. 이 세가지를 의식하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의미를 찾아라 이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모였고 이 선택을 했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왜 내가 여기에 있습니까? 거기에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스스로 질문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의미를 찾지 않고 공부하면 무슨 공부가 필요합니까? 집회를 가거나 훈련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사람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린 소리를 해요.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틀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 있지 여기 왜 와 있냐? 그런 소리를 해요. 내 건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자리를 선택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 <본론>

### 1.새 계명과 옛 계명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앞으로 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교회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천주교?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와 증인?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확인한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대언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통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요일2:7)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계명, 이것이 옛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요일2:8)

옛 계명은 어둠이 아니고 어둠을 비추는 참 빛입니다. 이 계명은 어둠에 처음부터 선포된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요일2:9-10)

영혼 사랑이 곧 옛 계명이고 새 계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어둠에 있던 자에게 빛으로 말씀하신 Good News가 지금 빛으로 임한 복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영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영혼 사랑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어둠에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빛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둠에 빛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요일2:11)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영혼을 살리길 축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만든 것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요일2:12)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온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홍 빛 같을지라도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면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받을 것이 아니고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청년들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요일2:13)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너희가 이미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걸 확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들, 자녀들, 청년들에게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요일2:14)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하는 것은 확증된 것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 2.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요일2:15)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일2:16)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 맘에 드는 것을 하고, 내 눈에 좋은 것을 취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마귀와 사탄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2:17)

이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 붙잡고 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 붙잡고 육신적인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것 붙잡고 삽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직장 가기 전에 정말 7망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망대를 가진 자가 오늘도 7여정 속에 직장을 가는데 오늘 저 직장에 어떻게 빛을 비추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밥 먹기 위해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둠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갑니다. 의미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나라 비밀을 위해서, 오직 성령충만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내가 237 5000종족으로 가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이 거한다, 이 말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요일2:18)

시대 흐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마지막 시대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제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요일2:19)

왜 교회를 다니다가 나가냐? 사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흐름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요일2:20)

흐름을 타는 사람은 현실, 사실, 진실을 알지만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과 목적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 3.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었도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요일2:21)

거짓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간 자들이 말하는 거짓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겹쳐져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요일2:22)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나간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간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이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이구나. 이해가 됩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미래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도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요일2:23)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요일2:24-25)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을 너희 안에 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내가 맞다면 나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영생과 구원과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요일2:26-27)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께 질문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 기름부음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요일2:28-29)

우리는 부모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소속과 현주소를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7망대, 7여정, 7이장표가 나의 현주소입니다.

## 《결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참되고 참 빛이고 말씀입니다.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계명을 붙잡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마지막 때입니다. 나의 주인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당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